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2024 홍해작전 시작하다

- 홍해작전 공동기도문 -

(다같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과 가정과 민족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부흥으로 가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인도자) “..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2)

(회 중)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오니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시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인도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31)

(회 중)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인도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18b)

(회 중)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4대 담임 목사님을 보내 주옵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인도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28)

(회 중)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인도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3)

(회 중) 주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하나 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정기당회 열리다

당회는 지난 수요일 2부 예배 후 6월 정기당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를 갖고 여러 안건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 2/4분기 각 부서 예산 집행관리 및 감독 -

재정위원회(위원장:서은석 장로)는 지난 1/4분기 각 부서의 예산 집행관리 및 감독에 이어 2/4분기도 실시합니다.

***대상:** 2024년도 2/4분기 부서별 배정 예산 및 지출 예산 전반 등

***확인자 및 방법:** 재정위원회, 서류 확인 (제출자료 검증 또는 장부 확인 등) 필요시 감사부서 합동 추진

*주요 확인 내용

- ▶ 1/4분기 확인 시 도출된 문제점 개선 여부
- 전용 통장, 회계장부 작성, 발생일자 및 오(誤)지출 건 반납 여부 등
- 부서별 예산집행 및 배정 예산관리 실태

▶ 부서별 회계책임자 지정, 회계장부 비치 및 관리 실태

- 24년도 부서별 예산편성 범위 내 집행의 적정성 여부 (집행계획 수립 여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 집행 여부 등)

*행정사항

부서별 배정예산 운용 통장사본 및 회계장부 사본, 예산이 집행된 주요 사업 계획서 사본 등을 2분기 익월 첫 주일(7. 7일)까지 재정위원회로 제출 바람.(통장 및 회계장부 사본 은집행 내역 확인(분기 말 잔고 포함) 가능 자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기도가 먼저라!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교인 설문 조사 실시

서울교회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준비하며, 서울교회 교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를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6. 9-6. 16), 2주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 시작하다

1. 오리엔테이션: 6월 8일(토) 오전 6:50, 503호
2. 교육기간
 - 1차: 이론 교육 / 6월 8일(토)-7월 20일(토), 오전 6:50-8:00, 503호
 - 2차: 전도와 봉사 훈련 9월-10월
 - 당회고시 및 면접: 11월 2일 (토, 오후 2시)
 - 안수 및 임직식 : 11월 24일(주일)

문화교실 봄학기 종강

지난 4월 13일(토)부터 시작한 문화교실 봄학기를 6월 16일(주일)에 종강합니다. 이번 봄학기 운영 현황은 총 5개 반 3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수강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래식기타-손태현 박미옥 이태승 옥종호 백도환 한상준 김웅기 임승환
- 색소폰-예완식 김종철 임광호 김정미 이준호 윤성남 정인주 정해욱
- 기초연기-김성현 송미령 김이환 김서환
- 조이워십-이신애 정미경 이영옥 장성미
- 즐거운성악-장석남 김영숙 석준희 채혜숙 정희자 홍건희 박인숙 김미영 김희 이영옥 김하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겔 47:6-12



손달익 위임목사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하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세월이 갈수록 메마르고 삭막하고 황폐하여 생명보

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2.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모퉁이에서 시작된 강물이 아라바 광야를 적시고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이 물이 흐르는 모든 곳이 생명을 되찾는 일이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광야도 살아나고 골짜기와 황무지도 살아나고 죽음의 바다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해버린 조국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회생의 은혜를 입을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라도 없어졌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땅은 황폐하게 되고 희망은 자취도 없으며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은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땅에 생명을 회복케 하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말씀입니다.(요 7:37-38 계 22:1-2)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병든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생명수가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 죽을 육체에도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엡 2:1)

3. 새로운 비전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 강의 물결이 온 광야를 적시고 사해를 변화시키는 신비한 광경을 목도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의 새로운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13-23절에는 그들에게 다시 허락하실 새로운 땅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범위가 매우 광활합니다. 이것은 유다왕국 역사상 가장 광활한 지역을 차지했던 다윗 왕국 시대보다 더 확장된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원대한 꿈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 나라요, 몰락해버린 민족입니다. 만국의 수치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의 땅을 축광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 광활한 지역을 다시 찾고 다스릴 때가 올 것임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꿈을 향해 늘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실패의 순간도 있고 고통의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얻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게도 광활한 지역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시작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로부터 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실패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지게 하고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성취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어린양 예수님이십니다. 이 생명의 주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나아갑시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는 죽음에 더 가깝고, 풍성함 보다는 각박함에 더 가까운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창 50:26). 천지창조의 화려하고 장엄한 생명의 탄생으로 시작된 창세기가 한 영웅이 죽고 그를 미이라로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며 죽음의 필연성과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역사도 생명의 풍성함과 번성함보다는 갈등과 폭력과 죽음의 내용이 더 많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 세상의 현상을 획기적으로 뒤집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1-22).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표상이 됩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은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1. 에스겔의 희망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 유다 왕국 몰락기에 있었던 제2차 바벨론 포로 사건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 출신의 포로였습니다. 그는 포로 된 지 5년 만인 BC 593년에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인 그발 강에서 환상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이끌리어 선지자가 되어 백성들에게 매우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백성들이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담대하게 희망의 환상을 제시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겔 43:4-5) 겔 11장에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광된 역사는 이스라엘의 문명 수준이 탁월하거나 도덕적 품성이 고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타락과 범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자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수치와 파멸이 순식간에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자 다시금 그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했습니다.(겔 43:4-5)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니 그들의 역사도 다시 영광의 회복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다시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우리 삶의 수치가 물러가고 영광의 시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롬 11:36).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꿈을 향해 늘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실패의 순간도 있고 고통의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얻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교인 설문 조사 실시

서울교회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준비하며 서울교회 교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를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6. 9- 6. 16) 2주간 진행합니다.

설문 조사 참여 방법은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개별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설문 조사 링크를 클릭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총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설문 조사 질문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답하면 됩니다. 누가 어떤 응답을 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온라인 설문시스

템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조사 문항별 답안이 내 생각과 일치하는 예시 문항이 없는 경우, 내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문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 참여가 어려운 경우, 본당 로비(2층)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종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지 수집함에 다음 주일(6.16)까지 넣으면 제출됩니다. 가능한 온라인 설문 참여를 요청하며, 온라인과 종이설문 중 한 가지 방법만 참여 바랍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연구로, 설문 조사 및 분석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목회데이터연구소'에 위탁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결과는 7월 하순 발행하는 순례자 특집 기사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설문 조사 기간: 6. 9-6. 16(2주간)
- 설문 조사 대상: 서울교회 모든 성도
- 설문 조사 방법: 문자발송 온라인 시스템 (또는 종이 설문지) 중 한 가지
- 설문 문항수 및 소요시간: 29문항, 약 10분 소요 예상

오늘 발송하는 설문 조사 참여 안내 문자메시지로 하단 링크를 클릭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외부인에게는 비공개로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인터넷 설문 조사 링크 첫 화면으로, 오른쪽 상단의 글자 크기를 조정하면 보기 편하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이 모두 끝나면 진행 상황이 100%로, '수고하셨습니다'가 뜨면 끝입니다. 뒤로 가기가 안되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대학 소식

호산나대학, 가평군 2024년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호산나대학(학장:이동귀)은 가평군(군수:서태원)과 함께 관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2024년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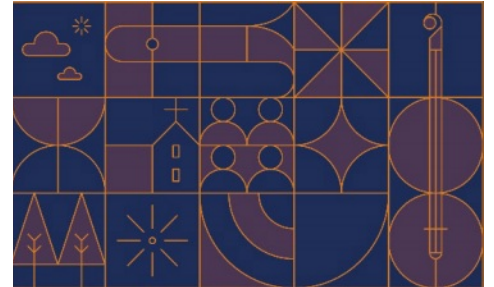
2024년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가평군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이 지원하며, 가평교육지원청이 반려동물 문화교실 참여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한 관내 초·중등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애견의 특성 이해 ▲동물생명존중 ▲유기동물 입양방법 및 절차 홍보 ▲반려견 기초훈련 체험 프로그램 등

으로 운영됩니다.

연하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강아지를 안고 있을 때 심장 뛰는게 느껴져 따뜻하고 좋았어요.", 조종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야겠다며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는 발달장애인 애견훈련사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개설되었고, 전국 발달장애 중·고등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 우리마을 공감영역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이웃과 함께 하는
**서울·공감
 음악회**
 2024. 6. 23. (일) 오후 5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서울교회



출연진 : 제회밴드, 지역예술인(리브러티 중창단, Reflash)

 전혜연 (가라오케)	 이민아 (가라오케)	 김현연 (가라오케)	 유현성 (가라오케)
 선다연 (가라오케)	 유민아 (가라오케)	 Reflash (가라오케)	 Reflash (가라오케)

리브러티 중창단 (리브러티, 홍기우, 박소연, 정혜진)

주관 | 이말예배소 | 주최 | 인천교회연합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4 홍해작전(위원장:김혜연 장로)이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여는 예배와 6월 6일(목)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홍해작전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진: 이승준 안수집사, 정승균 안수집사

8강: 중보자(1)

문제가 생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두 사람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제3자가 나서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건을 조정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10여 년 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형편이었고, 교통사고가 나면 목사도 신부도 없다는 말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차량에 차량용 CCTV 또는 블랙박스

가 설치되면서 보험사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교통사고의 중재인 역할을 합니다. 영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는 사람은 거의 없기에 대부분 교통사고 가해자들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우깁니다.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든지, 또는 습관을 좇아서 했을 뿐인데 돌발 변수가 생겼든지, 그것도 아니면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상관없이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서와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교통경찰과 보험사 사건조사 담당자가 사고 현장에 투

입되어 사건을 조사하고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또는 쌍방 과실인지, 쌍방 과실이라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책임 정도를 조정해주는 보험사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 곧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루는 12-15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문: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답: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짓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중보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루는 첫 번째 질문인 12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흐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사고의 비유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하면,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힌 사람이 처벌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안전장치로 보험을 들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을 율법의 요구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른 이”를 중보자 또는 구원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의해서 죄인은 유죄판결을 받고, 의인은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짓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

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형벌을 피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12문에서는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 놓고 있습니다. 짓값을 치르는 것은 의에 관한 문제이고, 누군가가 대신 치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은 자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 자신이 짓값을 치러야지, 죄인이 치러야 할 짓값을 다른 이가 치른다면 이것 또한 불공평한 일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공평과 불공평의 기준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이지, 죄를 지은 인간 자신이 따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죄인이 스스로 자신의 짓값을 다른 사람이 치르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백번 양보해서 논리적으로는 질문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가 짓값을 치르는 일이 불공평한 일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불공평한 일이라는 말인가요? 죄인에게는 불공평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공평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도 불공평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불공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죄인을 대신해서 짓값을 치르는 “다른 이”입니다. 다른 사람이 짊어져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대신 맡게 되었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이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일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짓값을 치르는 “다른 이”에게 불공평한 일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이”가 대신해서 짓값을 치른다고 한들, 또는 죄인 스스로가 짓값을 치른다고 한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불공평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짓값을 치르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짓값을 치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아무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짓값을 치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13문: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절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높다는 말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부족하다는 말은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인하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는 사람의 도움

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외에는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짓값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이”가 짓값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다른 이가 짓값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은 마치 상황 파악이 잘 안되는 신병이 고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는 상황을 설정하면 설명이 쉬울 것 같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서툴고 어설피서 아니면 머리가 나쁘고 부지런해서, 결과적으로는 사고만 치고 다녀서 뒤치다꺼리 하느라 더 짜증나게 만드는 것과 같

은 상황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5-6, 개역개정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 5교구 임훈규 은퇴장로·정경자 권사, 7교구 임종현 안수집사·김양지 집사 가정 (손자 임원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 섬기는 분들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성선헌
- ◇ 협동목사
양정호
- ◇ 손달익 위임목사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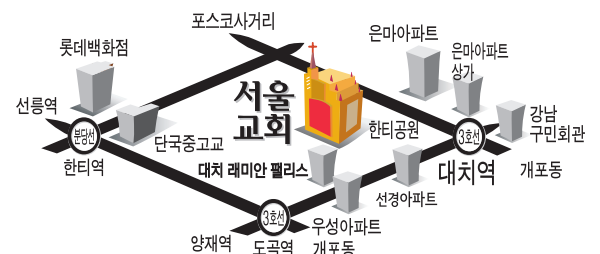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하기
2. 앞열 혹은 2층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70인전도대 6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6.2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6.5	도르가, 루디아, 뵤비
6.9	자원자	바울, 엘리야	6.12	마리아
6.16	자원자	모세	6.19	한나, 에스더(오후 2-3시)
6.23	자원자	이삭	6.26	리브가
6.30	자원자	스데반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6월10일	월	욘 34-36	신15	시102	사42	계12
6월11일	화	욘 37:1-40:2	신16	시103	사43	계13
6월12일	수	욘 40:3-42:17	신17	시104	사44	계14
6월13일	목	시 1-7	신18	시105	사45	계15
6월14일	금	시 8-14	신19	시106	사46	계16
6월15일	토	시 15-18	신20	시107	사47	계17
6월16일	주일	시 19-25	신21	시108,109	사48	계18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흥해작전 새벽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과 상황을 지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흥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2. 서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해외선교지, 비전2030 군선교지, 70인전도대의 전도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3. 나라의 위정자들과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비전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책무를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소외받고 고통받고 슬픔의 눈물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